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4월 14일(금)

---(음력 2월 24일)---

Пятница

14 апреля 2023г.

№ 14 (1203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올해 부활절은 4월 16일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 가스 인프라에 390억 루블리 이상 할당 예정

사할린 지역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지역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가스 인프라 형성 프로그램이며, 그 덕분에 작년 가스 연결 가구 수가 3배로 증가했다. 현재 많은 개인 주택, 기업, 보일러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들은 천연 가스를 공급받으려 15,000건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에는 3개 지자체와 7,0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추가로 가스가 연결될 예정이다.

지역 당국의 주요 목표는 전체 경제를 점진적으로 천연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에 이미 300명의 주민이 가스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2022년까지 1,250개 이상의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첫 2개월간에 200명이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7,000채의 주택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섬 지역 전체가 가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총 390억 루블리 이상이 할당될 것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지역 에너지부에 사할린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환경 친화

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연료를 가스로 전환하면 거주자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미 천연 연료로 전환한 주민들은 비용 절감과 먼지 및 매연 제거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지역 정부는 '가스프롬'의 자금으로 사회적 가스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프로젝트는 달네에 마을(유즈노사할린스크) 인근에 액화천연가스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수 차량으로 액화 가스를 코르사코브 항구로 운반하여, 다음 쿠릴열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할린주 예산에는 청정 연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장비 설치, 외관 가스 배관 및 집 내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최대 153,000루블리의 재정이 포함된다. 특권 계층 거주자를 위한 장비 구매 시에도 보상이 제공된다. "통합 러시아당" 자원 봉사자들이 가스화를 위한 상담 및 서류 제출을 도울 준비가 됐다.

사할린, 2024년 초까지 최초 농산업 단지 건설

러시아 극동개발부 보도부는 '유즈나야' 경제특구의 새로운 입주자가 유통 센터를 갖춘 사할린 지역 최초의 농산업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극동 및 북극 개발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흐파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35억 루블리에 달합니다. 이 시설은 2024년 1분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물류 센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위치할 것이다. 이는 현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가공, 보관, 판매를 위한 단지가 될 것이다. 도매 및 유통 센터의 용량은 15,000톤의 식료품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고 주야간에 최대 14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농산물 가공을 위해 별도의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다. 야채, 생선 및 육류 통조림, 육류 제품 외에도 제과 및 유제품도 이곳에서 생산할 수 있다.

사할린,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혀

러시아 연방 체육부는 2022년 러시아 지역의 체육 및 스포츠 발전에 관한 통계 보고서를 준비했다.

체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사할린 지역의 3세에서 79세 연령층의 체육 및 스포츠 참여율은 63%였다. 탐보브 주가 62.3%로 2위를, 크라스노다르 주는 61.1%로 3위를 차지했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양계장, 8만여 마리 병아리 받아

4월 10일에 사할린에 또 한 산란계 병아리들이 배송되었다. 스페르들롭스크 지역에서 약 82,000마리가 항공편을 통해 들어왔다. 이는 병아리의 마지막 배송이었다. 6월에는 양계장에 산란계 대신 첫 번째 부화용 계란이 들어올 예정이다.

예술 학교 교사 경연 대회에서 아니와의 교사가 우승

'아동예술학교 우수 교사' 전문경연대회가 4월 9일에 막을 내렸다. 시상식은 사할린 인형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사할린주의 12개 지역에서 15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들은 미술, 연극, 무용, 합창, 디자인, 음악 이론 분야, 민속악기 연주 등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승자는 아니와 아동예술학교에서 '아코디언', '바얀',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교사 이고리 이브코비츠이다.

전문 심사위원단 외에도 어린이(학생) 심사위원단이 '나의 최고의 학생' 단계에서 대회 심사에 참여했다. 유즈노쿠릴스크 아동 예술학교의 합창 교사 발레리야 루네와가 학생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2023 올해의 교사"콩쿨, 사할린주의 교사 30명 참여

'2023년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대회가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사할린주에서 개최된 가운데 16개 지자체에서 30명의 교사가 참가한다. 제33회 대회에서는 '사할린주 올해의 교사', '사할린주 올해의 교원', '사할린주 최우수 언어장애치료교사' - 세 명의 수상자에게 크리스탈 펠리칸을 수여한다. 올해 주최측은 대회에 두 가지 카테고리 추가했다: "사할린 주 올해의 디지털 교사"와 "나의 첫 선생님"은 상업 파트너 "테조나"와 VTB 은행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바' 등록이 4월 12일부터 시작

4월 12일, 러시아청년청 플랫폼의 전 러시아 청년 포럼 "오스트로바"의 등록이 시작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웹사이트 ostrova-forum.ru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포럼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되며 16세에서 35세까지의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주 정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포럼 프로그램은 애국 교육, 디지털화 및 직업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올해 참가자들은 로스몰로도위가 운영하는 보조금 공모전에 지원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최대 150만 루블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포럼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2023년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코르사코브 지역 의회 의원 일리아 로가쵸브: 나는 한인이다

작년부터 코르사코브 한인 사회가 새롭게 활성화됐다. '코르사코브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협회'가 새 지도자와 새 회원으로 충원되어 활동이 다양해지고 분주해졌다.

이번 주초에 신문사를 찾아온 일리아 로가쵸브는 "작년에 우리 단체가 코르사코브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최초로 '한국 맛보아라(테이스트 코리아)' 축제와 광복절 77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민들의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이는 우리 협회의 회원들이 잘 소통하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 덕이 성취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만 35세가 되는 그는 러시아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을 사할린 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할 때도 '우리, 한인들'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자주 쓴다.

마카로브시에서 태어나 9세 때 코르사코브로 이사간 뒤 그는 쭉 코르사코브에서만 살아왔다. 그는 코르사코브를 몹시 좋아하고 있고, 이곳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고 있다.

어머니는 그가 2살 때 아버지와 헤어져 그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슬하에 자랐다. 어렸을 때 한인들이 하는 축제에 자주 갔었고, 할머니는 집에서 주로 한국말을 하니 가정에서 하는 일반 한국말을 잘 알아들었고, 또 할머니가 그에게 한국말로 산수를 가르쳐주었으며, 한민족 전통과 풍습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코르사코브 한인디아스포라 협회 임원 여러분을 알고 있었고, 이 협회



가 더욱 활발해지고, 빛을 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는 이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경험도 많지만 단체가 죽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아이디어를 짜고, 계획하며 한인단체의 위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차세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의논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다. 결과로 큰 행사 2개를 성황리에 진행했고, 매주 정해진 날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단체 사무실을 찾아오도록 했다. 이들은 여기에서 상담을 받거나, 민원 사항을 접수해 협회 측에서는 해결책을 세워보려고 한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전에 한국어 교육도 하고, 사물놀이팀, 예술단 등을 운영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노래, 춤, 한국어 교육 등을 익히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이번 주말에 모든 시민들 앞에서 시문화회관에서 공연 발표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협회의 홍보활동을 맡은 일리아는 한민족 문

화와 한국어를 보급하는 데 대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일리아는 가장 중요하게 가족을 생각한다. 외동아들이라 어머니가 혼자 키워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높았고,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어머니는 평생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좀 부족해 그는 14살부터 여러 아르바이트도 해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가장 좋은 사립대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는데 일리아는 이 학비가 어머니에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대학을 그만두고 취직을 하여 모스크바의 한 대학에서 원격으로 공부해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거기에도 적지 않은 학비가 들어갔지만 자기도 일하고 있으니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뭉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19세 때부터 사할린주 법집행부 관리국 코르사코브 지부에서 근무했는데 23세에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부 부장으로 승진하여 역대 최연소 부장이 되었다. 매일 출퇴근을 코르사코브에서 하다보니 코르사코브에 자리가 생기자 코르사코브 부장으로 임직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는 매일 밤늦게 퇴근했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니라 사실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곤 잘 알고 있어도 더 많은 양의 일을 더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한다.

일리아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은 가족 때문이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 책임도 져야 했는데 그 당시 집행관들이 너무 적은 월급을 받

아 코르사코브 시행정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공공주택사업 관리, 노후주택에서 이주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사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다. 불만이 많은 시민들과의 대화는 어렵게도 불구하고 일리아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과 잘 소통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후 그는 가족 때문에 시행정부 일도 그만두었다.

한인동포 3세와 결혼한 그에게는 아내의 식구가 자기 가족이다. 아내의 가족은 그를 바로 받아들이고 '사위는 장모의 사랑'이란 말처럼 장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장인은 그에게 아버지이자, 인생 선배이자, 동업자이며, 친구 같은 분이기도 하다. 그는 "장인어른과 어느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아내의 가족이 여러 개인사업을 하는 관계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요청하면서 개인 기업인으로 등록하고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며 그 외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으로도 많이 자유로워졌다. 집행기관 일을 그만두고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도시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는 시민으로서 시정부 산하 여러 공공 이사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뭉든 일을 벌이기 전에 항상 가족, 아내와 함께 의논해본다. 한인협회 일도 그렇고, 코르사코브 지역 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할 때도 우선 아내와의 논했다. 가족의 동의로 출마 결정을 하였다. 가족과 친척이 지지하고, 친구들이 응원하고, 코르사코브 한인들이 적극 받아들여주고 해서 작년 가을에 의원

에 당선됐다. 사실 그의 투표구에서 11명의 후보자 중 4명이 당선되었는데 그 4명 중 1000여 명의 지지를 얻은 그가 가장 앞섰다. 그가 자부심을 가진 것은 진부한 정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정치에는 주민들의 지지가 사회, 도시를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일리아는 말한다. 의원으로서 개인 텔레그램-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활동을 소개하고 민원도 받고 있다.

일리아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성 없이는 명예가 없고, 명예 없이는 더 이상 진실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특성은 항상 서로 얽혀있으므로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라며 그는 자신이 구축한 가치 체계를 추구한다.

그 때문에 누구든 자식도, 손자도, 부모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사업, 사회활동, 한인사회 등의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그에게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 안 돼 항상 아쉬워 한다. 또한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다가 밤에 공부를 한다. 현재 대통령 산하 러시아 공무 및 국가 경영 아카데미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중이다. 이것도 자기 성장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

밝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리아 로가쵸브를 정말 응원하고 싶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고지대에서의 책이 가득한 봄' 축제 개최

사할린주 문화 및 문서보관부의 홍보실에 따르면 '고르니 워즈드흐' 스포츠관광단지에서 시즌 종료를 기념하는 '고지대에서의 책이 가득한 봄'이라는 축제가 열렸으며, 주요 주제는 독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한 주요 주제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축제를 찾은 많은 방문객들은 '빨간 망토', '장화 신은 고양이', '해리포터' 등의 문학 속 캐릭터로 분장하고 케이볼카 리프트를 이용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며, 이 행사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리프트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도서 하강"이라는 포토 크로스 참가자들은 스키장 중간 지점까지 이동한 후 11개 팀이 크로스컨트리 레이스에 참가했다. 각 팀들은 사진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이들", 미할코브의 "내무관 스테판 삼촌" 그리고 푸쉬킨의 "물고기와 어부 이야기" 등의 세 작품을 주제로 창의적인 사진 구성을 만들어야 했다.

이 축제에는 여러 문학 게임 장소도 운영되었는데 특히, 인터랙티브 팬 아트 공간에서의 '클래식 작가들이 스포에 대해' 7m 길이의 그림책이 눈길을 끌었는데, 여기에는 레브 톨스토이, 알렉산드르 푸쉬킨, 미하일 불가코프 및 여러 작가들이 운동선수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참가자들이 직접 색을 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독서는 건강에 좋습니다!"라는 행사장에서는 "1번 가족 클리닉" 진료소의 의료진이 방문객을 맞이하여 그들의 키를 책으로 측정하고 시력을 검사하고 체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레드 버스"의 교사와 함께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는데

'속독 장소'에서는 다니엘 함스의 시 '볼로자가 얼마나 빨리 산 아래로 날아갔는가'를 읽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분당 150~160단어를 읽어야 하는 기준에 맞춰야 했다.

주요 무대에서도 시 낭송이 있었는데, "스키 위의 시!"라는 낭독이 크게 울려 퍼지기도 했지만 "도서" 주인공 의상 경연대회와 퍼레이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 수상자들은 사할린 주 어린이 도서관 파트너들로부터 상을 받았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нижная весна на высот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ем, посвященным завершению горнолыжного сезо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фестиваль «Книжная весна на высоте!», главной тематикой которого было продвижение и популяризация чтения. Многи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пришли к подъемникам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в костюмах литературных героев: Красной Шапочки, Кота в сапогах, Гарри Поттера и др. Для таких посетителей подъем был бесплатным.

Первыми на среднюю площадку горнолы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днялись участники ФотоКросса «Книжный спуск». На участие в кроссе заявили 11 команд.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должна была найти подходящее место для съемки и оригинально выполнить фотокomпозицию на тему тре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тцы и дети» И. Тургенева, «Дядя Степа – милиционер» С. Михалкова и «Сказка о рыбаке и рыбке» А. Пушкина

На фестивале работали несколько литературно-игровых станций. Так, внимание привлекала 7-метровая раскраска на интерактивной фан-арт площадке «Классики о спорте». На ней были изображены Лев Толстой,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Михаил Булгаков и другие писатели в образе спортсменов. Гостям фестиваля предлагалось раскрасить их.

На станции «Читать полезно для здоровья!» гости встречали библиотекари и медики из «Семейной клиники #1» Они приглашали всех желающих измерить свой рост в книгах, проверить зрение и узнать свой вес. Для любителей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 площадке, где вместе с педагогами школы «Ред Бас» можно было почитать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пункте скоротечения» предлагали прочесть стихотворение Даниила Хармса «Как Володя быстро под гору летел». Нужно было уложиться в норматив 150-160 слов в минуту.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тоже звучали стихи – здесь прошли громкие чтения «Стихи на лыжах!». Однак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собрал конкурс и парад «книжных» костюмов.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от партне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6살 어린이의 그림으로 꾸며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버스 정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꾸며진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었다. 데츠키야 거리에 있는 동물원 근처에 멸종 위기 동물로 등재된 해달이 그려진 파빌리온이 등장했다. 해당 사항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환경개발센터의 책임자 바실리 비슈네프스키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

"5단계"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어린이들의 그림으로 꾸며진 정류장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멸종 위기 동물로 등재된 해달의 스케치는 여섯 살 어린이 알렉세이 바탈로브가 그렸다.

Автобусную остановк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красили по эскизу шестилетнего ребен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ановили очередную автобусную остановку, украшенную рисунком. Возле зоопарка на улице Детской появился павильон с краснокишными каланом.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асилий Вишневикий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Остановками по эскизам детей украшаю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5 шагов». Эскиз краснокишного калана сделал шестилетний Алексей Баталов.

(8면에 계속)

주 코스타 학생 소식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 흄스크시에 거주하는 주 코스타 학생의 독일 전문클리닉에서의 뇌종양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이 진행되었다(본지 2023년 3월 17일호).

4월 2일 독일로 떠난 코스타는 지난 주 화요일에 유명 독일 외과의사 솔츠 교수로부터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뇌의 종양이 2주 만에 커졌는데 다행히 제때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현재 코스타와 부모는 수술 이후 경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치료가 정해진다.

아들 수술 걱정으로 경황이 없었던 코스타의 부모는 모금운동에 나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 이번 모금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한인 동포도 많았지만 러시아인도 적지 않았다. 특히 주 코스타 학생과 같은 이름을 가진 유명한 권투 선수

주 콘스탄틴이 크게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주 코스타 학생을 살립니다"라는 기사를 읽고 한국 교민들로 구성된 '사할린 아리랑 장학회'에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모금한 성금을 전했다.

이렇게 사할린 한인인 러시아인,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주 코스타 군 살리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섰다. 이제 주 코스타의 건강 회복만이 남았다.

(배순신 기자)

오진하 회장 지지 야외 회의 소집

지난 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 부근에 100여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주한인협회 오진하 회장 지지 야외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2월 주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된 오진하 회장을 적극 지지하며, 박순옥 부회장이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할린주한인협회에 주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 개의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박순옥 부회장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옥 씨가 주한인협회장 당시에 단합이 아니라 주한인협회 내에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 참가자들은 4월 1일 진행된 주한인협회의 임시 대표자회의 진행과 결과 자체를 인정 못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오진하 회장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회의 주최자로는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회장이 나섰다.



한편 박순옥 부회장 측에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할린한인사회의 혼란상태에 대한 책임은 오진하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취재: 배순신, 이예식)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영주입국자 지원캠프' 운영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사할린동포 영주입국자 지원캠프'를 운영한다.

1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22년 선정돼 올해 입국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350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정착 지원 캠프를 진행한다.

사할린동포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지난달 17일과 31일 대한적십자사의 인솔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배편을 통해 국내에 입국, 정착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지원캠프는 경기지사 구호복지팀 서남봉사관과 연계해 13~14일 신규지역 입주 대상자들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한 임대계약(총 143세대, LH)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 입주지역(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남, 부산)의 생계급여 신청과 관계부처 법무부와 연계한 국적판정 신청 현장 접수(5월 중)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령인 대상자들을 위한 국내 첫 건강검진 및 은행계좌 개설방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일보)

5월 광주 고려인마을서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

고려인 미래 논하는 국제학술회 · 축제 겸한 'K-미래대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전 세계 고려인 단체들의 중심점 역할을 할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이하 고려인총연)'가 다음 달에 출범한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오는 5월 19~21일 고려인총연 출범식과 국제학술회 및 축제를 겸한 '제1회 K-미래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삶으로 담아낸 아시아, 광활한 생명의 길'을 주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고려인마을과 호남대 등에서 행사가 열린다.

대회 첫날인 19일에는 고려인총연 출범식이 열린다.

호남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고려인협회 회장 등 관계자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미디어, 재한고려인연합회, 국내 이주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고려인총연 수장은 각국 고려인단체 회장 등이 공동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총연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차세대 육성에 앞장서며, 고려인사회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출범식에 앞서 오전에는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K를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고려인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호남대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며 김계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 교수, 천 발렌틴 러시아 미디어 고려인들 주필, 김 블라디미르 우즈베키스탄 작가, 배 빅토리아 사할린 새고려신문 대표, 김병학 월곡고려인문화관 관장 등이 참여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고려인마을 소재 흥범도 공원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예술단의 초청공연 무대가 열린다. 이와 함께 재한 고려인들의 모국 생활을 이야기하는 '말하기 대회'도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고려인 및 CIS 지역 전통 음식과 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고려인총연 관계자 등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예방해 간담회를 가진 후 광주시 소재 중외공원에서 열리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함께한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봄 /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쯤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겨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봄입니다. 밤이 오면 봄밤, 바다로 떠나면 봄바다, 비가 내리면 봄비. 이름만 들어도 어쩐지 설레는 단어들이입니다. 제가 사는 여의도에서는 빗꽃들이 만발하고, 큼직한 모란이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이 모든 걸 기억하려는 듯, 각자의 스마트폰에 각자의 추억을 담습니다. 저는 쓰레빠(슬리퍼)를 질질 끌며 봄밤을 거닐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아주 늦은 밤 새벽 한 두 시쯤. 힘겹게 치켜올려 커다란 후두 모자를 뒤집어쓰고, 반바지차림으로 꽃길을 걸었습니다. 드문드문 취객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마치 봄밤의 수호자인 양, 온 거리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이러면 믿지 않으실 테고. '네, 네, '땀' 때리는 눈빛으로 '바나나 우유'를 사러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거닐었어요. 종종 아들 녀석도 함께 걸었습니다. 아드님은 늦은 밤까지 컴퓨터 게임을 즐기다가 저랑 함께 걷는 식이지요. 바나나 우유 마시려고. 저는 주식으로 까먹은 돈을 한푼두푼 계산하느라 이곳저곳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고, 아들은 게임으로 인해 열 받은 머리를 식히려 걷는 중이고, 저는 제대로 제 CPU의 과부하를 다스리려고, 걸었던 셈이니, 맞겠지요, '아름다운 밤'.



'싱그러운 봄밤이여, 영원하라!' 아, 뜬금없지만 저도 감탄사를 한 번 날려보고 싶어져서, 앗, 죄송! 뭐 어찌겠어요. 인생이란 이런 상황에서도 고귀한 명언들을 아들에게 소개하고, 버틀란드 러셀의 논제들도 살짝 끄집어주는 거죠. 잠깐이나마 선각자처럼 보였을 텐데, 이 좁은 끝을 뚫어야 하는 건데요. 과한 게 늘 문제지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 결국 이 필(FEEL)을 이기지 못해, 아들과 함께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을 틀어놓고 문워크 춤을 춰 버리는 거지요. 아내에게 혼쭐이 난 뒤 침대로 끌려가는 서글픈 기승전결이러니.

꽂꽂 얼어붙은 진흙 누더기를 털어내고, 봄의 꽃과 봄의 과일들을 움켜쥔 채, 봄님이 오셨습니다. 조만간 사할린 이곳저곳에도 봄님이 들리실 거예요. 얼마 전 흄스크 앞바다에서 보내준 동영상도 보니, 흄스크 앞바다에 청어떼가 잔뜩 몰려들었다고요.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낚시대같은 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 손으로 양동이에 한 일년 치 들통 담으면 그 뿐. 청어들도 봄바람을 맡고 싶었는지, '에라 모르겠다', 육지로 뛰어 들었나 봐요. 참으로 놀라운 봄의 힘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사할린주 인구 통계학적 상황

사할린주는 1월에 자연 인구 감소를 보였다. 총 374건의 출생과 605건의 사망이 신분등록소에 등록되었다. 자연 감소 인원은 231명이었고, 2022년 같은 기간에는 349명이 감소했다.

사할린 지역에서 오로지 노골리키 구역에서만 사망자보다 출생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혼인 건수는 221건, 이혼 건수 205건이었으며, 2022년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168건, 이혼 건수 167건이었다.

사할린주 이민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1,590명이 입도했으며, 이 중 33.7%가 영주권자였다. 1,284명이 사할린을 떠났으며, 이 중 77.0%가 이전 거주지에서 등록을 취소했다. 424명이 사할린주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했다. 이주자 수는 306명이었다.

사할린 주의 사회적, 인구학적, 환경적, 그리고 다른 사회적 과정에 대해 사할린통계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사할린주 통계국 홍보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сте Цзю удалили опухоль

Как мы уже сообщали, у Константина Цзю, ученика выпускного класса из г. Холмска,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опухоль мозга. Необходимо была срочная операция, помощь предложили высококлассные хирурги из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клиники в Германии.

Как сообщил наш источник, в воскресенье 2 апреля Костя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вылетел в Германию,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о вторник ему сделали операцию по удалению опухоли. Делал операцию хирург с мировым именем - профессор Мартин Шольц. Сказали, что операцию сделали вовремя.

Так как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очень до-

рогостоящие, был объявлен сбор денег, на который откликнулось много сахалинцев. Большую поддержку оказал знаменитый боксер Константин Цзю. О то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помощь, через нашу газету узнали и южнокорейцы, живущие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ясь членам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Сахалин Ариран», они также вместе с нам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омощи юноше, который влюблен в Корею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Родители Константина просят переда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неравнодушны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их беду.

Владислав Ха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специальной премии Фонда Чхве Чжэ Хёна 2023 года

1 апрел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и объявлены результаты итогов 4-й премии Чхве Чжэ Хёна – одного из лидеров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начала XX века и активного участника антияпонск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 Приморье.

По итогам голосования основатель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и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а «Корё сарам», внук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Хан Шен Гера Владислав Ха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специальной премии Фонда Чхве Чжэ Хёна.

Главная премия была присуждена председателю Фонда Ли Тхэ Сока Ку Су Хвану. Групповая премия вруче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ю Kogea Kolma (Сеульский фонд Ё Хэ) Юн Дон Хану. Ещё одним лауреатом специальной премии Фонда в этом году ст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льско-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Нам Чжон Сок.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 сарам.

Исповед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енерала

Москва, 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Книга «Иль Тан Бэк (Один против ста) Исповед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генерала» об удивительной судьбе корейского мальчика по фамилии Пак, вынужденного в начале 20, века после трагической гибели родителей бежать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Он стал приемным сыном в семье офицера Рус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потом воспитанником детской разведшколы, большевиком-подпольщиком и партизаном, а потом – советским офицером-разведчиком.

Посл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герой книги вернул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где он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и становлении н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ак стоял у истоков формирова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пецназа, участвовал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1953 гг., а позже курировал разработку Пхеньяном собственн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кончил службу в долж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Разведуправле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ом КНА, Героем КНДР.

Книга охватывает период с 1906 по 1996 гг., действия происходят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Хабаровске, Москве и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Сахалине, в Маньчжурии и в Корее. Необычная судьба Пак Хэ Бёна связана с множеством выдающихся личностей, в том числе Россий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Николая II, борца за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в Приморье Сергея Лазо, вождя мирового пролетариата В.И. Ленина и Генералиссимуса И.В. Сталина. А также прославленного летчика, трижды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вана Кожедуб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Мао Дзэдун. Многие годы Пак являлся близким соратником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Эти встречи, несомненно, наложили отпечаток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характера и мировоззрения героя повествования. Описанные в книге события реально имели место в жизни.

Автор — москвич Сергей Ищенко, выпускник высшего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илища проходил службу на Украине и в



Белору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за рубежами нашей страны. В период с 1988 по 1998 гг. работал в длительных командировках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де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успехами и трудностями страны. Он рассказал как возникла идея написания книги, описывающей деян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м м, США, Китая, Кореи, Японии, приведены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относящиеся к важнейшим событиям за почти прошедшие 100 лет в Корее.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состоялась в Дом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Её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тало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медиагрупп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участия учё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деятелей,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ФНКА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исьмо на Сахалин

Уважаемые сахалинцы!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ак и оста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РФ и СНГ,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ыступает за справед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наш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к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е, оставленной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Спустя многие год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тавшая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мира, взялась решать свою некогда неисполненную обязанность в отношении брош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делает это непродуманно - поделив членов семьи на родившихс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и после.

Одна из причин половинчатых и непродуманных решений, принимаемых РК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единства, отсутствия мощ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и попыток решить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частные задач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смогли сформулировать свои ОБЩИЕ ЦЕЛИ, охватывающие интересы всех групп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этому мы выступили с инициативой создать фору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х регионов РФ и СНГ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и выработки общей цели.

Оргкомитет планирует 1-2 июня 2023 г. провест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е совещание, а 3 июня конференцию на тему: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ути решения".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специально приглашё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РК: доктор наук по праву Че Ген Ок,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Диаспора" Пак Бонг Су, адвокат Ден Ен Хо, а также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РК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ы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

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тоговое Заявление Конференции будет передано во вс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РК: президенту, парламен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част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а), а также с ним будет ознакомлена через СМИ широк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заявлении будет отражена наша общая цель, в том числе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призна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диаспоры "особой общностью",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дившиеся гражданами Кореи по конституции, долгие годы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находиться в статусе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лишёнными основных гражданских прав.

На основе "особой общности" мы вправе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особые условия репатриац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преференции для 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а возможно,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новый спецзакон.

В преддверии такого значимого для решения наших вопросов форума, конфликт, ставший известным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Сахалина - может свести на «нет» усилия в решении наших с вами проблем, и стать препятствием для диалога с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К. Сложившая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итуация -- общая боль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зависимо от региона проживания...

Призываю всех сахалинцев не оставаться равнодушными и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разрешения спорной ситуации.

Только ед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мож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оложительному решению наших вопросов - достижению нашей це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Цой Ен Го (최영구)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Когурё и его соседи»

3 апреля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МГ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ошёл научный семинар «Когурё и его соседи». С основным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 С.В. Алкин – к.и.н.,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У, с.н.с. Института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СО РАН (Новосибирс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археолог-востоковед, участник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экспедиций, в том числе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рограмм по изучению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эпохи неолита 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России (Приамурье) и Корее (о. Чеджудо).

В дискус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отрудн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Н.Н. Ким, Е.А. Вострикова, К.В. Хазизова) и историки-корееведы и археологи из вуз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ом числе М.А. Стоякин (Институт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и, г. Тэджон), А.В. Соловьев (НИУ ВШЭ), А.В. Воронцов (ИВ РАН), М.В. Солдатова (РГТУ),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ИСАА МГУ.

С.В. Алкин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археологов-востоковедов, который участвовал в экспедиции в г. Цзиань, район расположения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памятников ранней эпохи Когурё – городище, гробницы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от 7500 до 11000 погребений). С.В. Алкин поделился интересными наблюдениями об обнаруженных в древней столице Когурё артефактах, вместе с участниками семинара обсудил проблему сохранности, датировки и доступности древних памятников.

Одним из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й обсуждался в ходе семинара, стала отечественн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Когурё и



работы советских 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еведов. С.В. Алкин отметил вклад в когурёведение профессора МГУ Р.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ой, которая расшифровала эстампы стелы вана Квангэтхо (IV-V в.) и опубликовала перевод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1979 г. Это был первый перевод памятника на европейский язык.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работа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археологов – востоковедов В.Е. Ларичева, А.П. Деревянко, Ю.С. Худякова, Э.В. Шавкунова,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ИСАА МГУ.

Дискуссия коснулась также «исторической войны» между Китае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РК и КНДР, с другой, по вопросу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огурёских захоронени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провинции Цзилинь, и точки зр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ученых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е. Участники семинара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Цзиани на северном берегу р. Амноккан в исследуемый период располагалось корейское, а не кита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широко изученные в России. Оно, бесспорно, испытывало сильное влияние кит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днако развивалось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отличному от китайского, пу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РК и США обсудят утечку данных из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ласти РК про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ША об утечке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где содержа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сужден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озмож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О такой утечке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New York Times. Внимание официального Сеула привлекла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суждени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ША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наряд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даны Украине. В публикации New York Times говорится, что документы, размещённы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ют «внутренние дебаты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Выступая 9 апреля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тметил, что в позиции Сеула в отношении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изменений нет, и решение о поставках летального оружия не принято. В тот же ден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Чо Тхэ Ёна,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ись способы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убликацию New York Times. Президент Юн Сок Ёль дал указание тщательно изучить проблему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отчётов от причастных к ней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Ранее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сообщила, что Пентагон начал расследование утечки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участия США и НАТО в подготовке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Множество документов, раскрывающих информацию о графиках поставок оружия и численности войск,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Проект «завтрак за тысячу вон» может охватить все университе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проект «Завтрак за тысячу вон» на вс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траны. Его инициатором я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 первы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ем, который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нему ещё в 2015 году, ст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Чоннам. Доступное и качественное питание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аспектом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хороше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Особенно это актуально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го времен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итание должно быть доступно каждому студенту, независимо от его финанс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читают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Между тем,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растут, и обычный обед в студенческой столовой обходится сегодня примерно в пять тысяч вон или четыре доллара. Не каждому это по карману, и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комплексное питание стоимостью тысячу вон или 75 центов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подспорьем. Набор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рцию риса, суп, закуску в виде квашеных овощей кимчи, немного жареного мяса или рыбы. Конечно, выбор блюд ограничен,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утолить голод, когда не хватает денег. К конц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проекте «Завтрак за тысячу вон» участвовали 28 университетов, а сейчас их 41. Большой наплыв заявок вызва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к увеличению размера бюджета, чтобы покрыть необходимые расходы.

Экспорт рамён достиг нового рекорд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экспорт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ён достиг нового рекорда, составив 208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п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морской продукции, нынешний показатель на 14,3% больше предыдущего рекорда, за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ичину роста поставок рамён объясняют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мире контенто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Кроме того, за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ырос спрос на еду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ежду тем, общий объём экспо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ократился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на 2%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2 млрд 179 млн 100 тыс.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выросли поставки в Китай на 18,5% и Японию на 3,3%.

В мае в РК пройдёт акция Korea Duty-Free FESTA-2023

В ма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ведёт фестиваль распродаж Korea Duty-Free FESTA-2023 в рамках мер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внутреннего рынка. Как сообщили 6 апреля в таможенном управлении, данная акция, намеченная на туристический сезон, нацелена на активизацию рынка и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В этот период во всех беспошлинных магазинах страны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скидки до 20%. По всей стране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карты беспошлинного шопинга, на которых отмечены турист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и беспошлинные магазины. Кроме того, для упрощения процедуры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с 1 мая отменя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е заполнение таможенной декларации.

(RKI)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е может замять скандал с прослушиванием спецслужбами США

Скандал с публикацией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спецслужб США, где представлены факты прослушивания американц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поставил политиче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крайне неудобное положени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й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отчаянно пытаются замять скандал, не желая 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главным союзником, н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МИ и даже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указывают, что это нельзя спускать на тормозах. У не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же стали сдавать нервы в общении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задавать неудобные вопросы.

Это, однако, не встретило понимания ни у депутатов, ни у прессы, ни у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егодня в ходе слушаний в парламентском Комитете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РК пришлось краснеть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ак Чину, который также лишь повторил,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документов искажены" и "надо сначала все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яснить". Однако депутаты отказались поддерживать явную попытку все замять, сделав вид будто ничего не было. "Господин министр,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держания публикаций, не кажется ли вам, что сам факт прослушивания наш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о есть вас, уже сам по себе возмутителен? Почему

вы не требуете извинений у США?", "Даже СМИ США говорят, что искажена лишь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вы же говорите, что искажено большинство. Откуда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Вам что поступили разъяснения из Вашингтона?", "Вам не кажется, что есть вещи, которые нельзя позволять никому, в том числе, и даж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юзникам?" - такие вопросы пришлось выслушивать министру от депутатов, причем возмущения не сдерживали да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Тем не менее,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решило до конца спускать на тормозах скандал. В какой-то степени Юн Сок Ёль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можно понять. Буквально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Юн поедет в США, где ему пообещали прием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 визиту придан статус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11 лет.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70-летний юбилей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льянса США и РК. В этой связи скандал разразился в очень неудобное время, грозя испортить всю помпу и триумф Юна, а ответов на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корейцев, так и нет.

Это стало очевидно сегодня в Вашингтоне, куда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Тхэ Хё прибыл для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поводу повестки

будущего саммита, а заодно согласования с США путей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кандала. Ког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окружили чиновника и стали задавать вопросы по поводу подслушивания со стороны спецслужб США, то Ким сначала пытался отбиваться стандартными фразами о том, что "многое искажено". Он также "сразил" репортеров фразой, что США "прослушивали, не желая нам плохого". Но вопросы продолжались, и чиновник в итоге потерял самообладание: "Я больше не буду говорить по поводу этой проблемы. Понятно? Если снова спросите, то я пошел! Все ясно?" - нервно сказал он журналистам.

Политологи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своей крайне проамериканской ориентаци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ь загнало себя в угол. "Это уже не вопрос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Есть вещи, которые просто нельзя прощать и так оставлять, если считаешь себ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Мы не колония США, поэтому понятно, что обычные люди хотят внятных пояснений и извинений. Наше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ледует помнить, что они поставлены защищать интересы Кореи, а не 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лишь бы не испорт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Белым домо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итуацию один из известных местных экспертов по дипломати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ризнал правоту апелляции иностранки

Сеул, 9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Южной Кореи постановил, что пункт Закона о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препятствующий выплате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й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является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Решение было вынесен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ьетнамской женщине, чей муж работал в Южной Кореи и погиб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счастного случая на стройке, ассоциация взаимопомощи строителей обратилась в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ях из-за ее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и проживания за границей. По единодушному мнению всех суде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статья Закона о бывших строителях является неконституционной.

Вьетнамская женщина, подавш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ую апелляцию, зарабатывала на жизнь регулярными денежными переводами, отправляемыми ее мужем, который работал в Южной Коре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е муж погиб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счастного случая на стройке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женщина обратилась в ассоциацию взаимопомощи строителей —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отвечающую за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аботников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 с просьбой выплатить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взаимного пособия.

Однако ассоциация решила, что женщина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а условия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й, предписанным Законом о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поскольку она является «иностранной гражд-

данкой, проживающей за границей». Женщина подала иск против ассоциации с требованием о своих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ях и обратилась за вынесением решения о конституцион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рав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Однако суд отклонил обе апелляции и женщина подал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ую жалобу.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остановил, что исклю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потерявших близких,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из категории лиц,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енсионные отчисления, нарушает принцип равенства.

Между тем, с пересмотром Закона о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чих в ноябре 2019 года было отменено положение об исключении из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й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границей.

В Европе заговори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Сеул, 8 апреля – ИА РУСКОР.

На фоне растущего глобального интереса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аряду с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желающих изучать его, Национальный музей Хангыля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в этом году проводит серию специальных выставок в Польше, Германии и Австрии.

После прошлогодней выставки в Венгрии музей объявил о своем польском разделе тура «Дизайн-проект Хангыля», работающем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в Варшаве.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открыта с будущей недели по 31 ма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Варшаве.

Проект надеется раскрыть дизайн Хангыля как форму искусства, переосмысливая персонажей как современное 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чтобы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функциональную и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красоту Хангыл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сего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30 работ, в том числе Хангыль, представленный в графической форме, мебель, реплики артефактов, моду и медиа-арт.

В первом разделе представлен прототип Хангыля, который восходит к 15 веку и основан на «Хунминчжонгеуме», системе письма, созданной в 1443 году королем Седжоном (1397-1450) и учеными «Джипхендж», королевск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торой посвящен гибкости хангыля как фонетического алфавита. Выставка завершается изучением эстетики уник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Хангыля. В период выставки также будет проведен ряд семинаров и экскурсий.

По данным музея, в Польше есть пять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 отделе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торых ежегодно обучается от 25 до 40 новых студентов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стории и куль-

туры.

Выставка «Хангыль» в Польше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оскольку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ется 40-я годовщина открытия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Варшав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и 20-я годовщина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Адама Мицкевича.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Хангыля Ким Ен Су представит копию Hunminjeongeum Haerye, печатного издания комментариев Hunminjeongeum, каждому отделу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в знак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за обмен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ольше.

Между тем,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Хангыля, выставки в Герма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с 7 июля по 9 сентября, а в Австрии — с 1 октября по 31 декабря в корей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ах каждой страны.

Центр бокса на Сахалине сдадут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Центр бокс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сположится в здании площадью более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не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более 400 спортсменов, зрительские трибуны также рассчитаны более, чем на 400 человек. Работы на объекте идут по графику. С инспекционной поездкой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е побы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Федерация бокса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 с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егион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реализует в стране программ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центров бокса. У нас желающих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се больше, спортсменам требуются новые площадки.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скор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центра. Это будет спортивный объект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в котором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как всероссийские, так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здании площадью более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зместятся тренировочный и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ы, раздевалки, душевые, процедурный кабинет, тренерские и судейские комнаты, кабинет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персонала, буфет, гардеробная, служебно-бытовые и технические помещения и конференц-зал.

–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ен боле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Сейчас идет прокладка внутренних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системы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наружных сетей связи, щитового, вентиляци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абелей слаботочных систем, устройство фасада, монтаж витражей, укладка керамической плитки в санузлах и душевых. На объекте работает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идем по графику, с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проблем нет, материалы есть,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ирекции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горь Крууз.

На последнем этаже строители готовят универсальную спортивную зону со зрительными трибунами на 430 мест, рингами, которые можно при желании убрать и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зал для занятий баскетболом, волейболом, мини-футболом.

– Боксерское со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дет открытия центра с нетерпением.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у нас занимаются около 1800 ребят, а секцию бокс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спортшколы «Кристалл» посещают 150 спортсменов. Нам бы хотелось сохранить действующие отделения бокс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днако город растет, поэтому уже нужны и новые залы, где дети могли бы тренироваться. Уверен, что новый спортобъект станет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бокса и местом, где мы сможем пров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разных уровне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окса, тренер по боксу СШ «Кристалл» Николай Слишук.

Напомн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яда масштабных спортобъек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ысячи спортсменов примет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Кроме того, «Газпром» в рамках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зводит два объекта: пятиэтажный центр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универсальны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гд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тренировки 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волейболу, баскетболу и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Более 30 дв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устроят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островах из бюджета РФ выделено 209 млн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Президентской единой субсидии во дворах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тротуары и проезды, создадут условия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жителей, высадят кустарники и деревь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устроят зоны отдыха, спортивные и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Дворы, которые преобразят в этом году, выбрали сами сахалинцы и ку-

рильчане в ход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я на платформ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https://ros.gosuslugi.ru/>.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 сформирован перечень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которые, по мнению жителей, больше всего нуждаются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 Мы будем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детские площадки, асфальтовое покрытие, устанавлив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ал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формы: лавочки, урны, беседки.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ход работ и принимать результат будут сами жители двор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островитяне смогут совместно с управля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дополнять двор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создавать палисадники, устанавли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элементы,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ход работ в своих дворах и задавать интересующие вопросы по номеру горячей линии ЖКХ: 8 (800) 302-00-65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0065 с мобильного. Обратиться можно также через WhatsApp: 8 (924) 884-42-03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субботу с 08:00 до 20:00).

–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когда на месте нашего разбитого двора появятся новые интересные и безопасные для детей, а также комфортные для взрослых зоны отдых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лена Рязанцева.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1000 дворов» реализуе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Курирует проект вице-премьер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обновление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вышение индекса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Бережливых проект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няли сразу три первых места в номинации «Бережлив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 лидерах –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смогли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питания детей,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сотрудников 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ть трудоемкие процессы.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в Хабаровске.

Победителем среди дошкольны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тал детский сад № 28 «Матрешк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курсн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л сделать питание малышей более рациональным и разнообразным. Так, ритм приема пищи привед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нормативными требованиями. При этом в рацион включили до пяти видов хлеба, расширили ассортимент молочных коктейлей, разнообразили другие составляющие детского питания. Также удалось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аботы младшего персонала – у сотрудников появилось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на уборку помещений и помощь воспитателям. График работы стал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у воспитателей высвободилось время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малышей.

Лидер сред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гимназия № 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учреждении создали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ит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ократив время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ликвидировав очереди. Для этого, к примеру, в буфете установили барную стойку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учеников. Р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толовой позволила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обслуживания с 3 до 2 минут,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на обслуживание в буфете и на линии раздачи с 8 до 3 минут. Теперь школьники могут позавтракать или пообедать, сохранив для себя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на переменах.

Победителем из числа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тал Сахалинский техникум отрасле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а. Выйти в лидеры позволил проект «Оптимизация

процесса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ГБПОУ «СТОТиС». Благодаря разработанному онлайн-сервису по управлению качеств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чреждению удалось высвободить трудозатраты и обеспечить сбор актуальных данных в оперативном режиме. Педагоги получили актуа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учету успеваемости, посещаемости, имеющихся проблемах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Созданный сервис позволил оператив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данные об успеваемости студентам и их родителям.

Напомним, данный конкурс «Бережлив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е. Его целью является тиражирование лучших практи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оследующее внедрение в учреждениях.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недр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бережли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хватывает все больше сфер и отраслей.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еспечив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эффективному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На островах только за 2022 год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230 проектов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13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ных образцов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плане на 2023 – свыше 500 проектов в органах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редприятиях и учреждениях. В их числе – более 50 проектов, сокращающих срок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Сахалин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готовится к расширению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добра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репетиций и выступлений. Группы хореографии будут репетировать номера в здании на улице Есен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де до переезда располагался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Дзюдокан. А вокалисты и музыканты займут площади в новостройке неподалеку от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В обоих зданиях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оведут ремонт. Объекты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мы уделяем такое ж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ак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ю, образованию или ЖКХ. Потому что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досуга и развития своих талантов. Уже лето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ут большие концерты участников Академии эстрады, которую мы чуть больше месяца назад открыли на острове. Ребятам необходимы площадки для репетиций. Важно, чтобы у людей было желание проявить себя, а власти всегда готовы их поддержа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заняти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подобрали здание на улице Есенина, где до переезда располагался спортивный клуб Дзюдокан. В бывшем спортзал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роведут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ходную группу и проведу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легающей территории, к украшению фасадов подключатся островные художники. Осенью в здании проведут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зиме. После этого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проект на глобальную модернизацию помещений под нужды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Вокалисты и музыканты будут репетировать и выступать в рамках малых форм в недавно построенном здании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в паре десятков метров от одноименной площади. В июне здесь будет завершён ремонт с учетом всех требований.

– Здесь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кавер-бэнд и сторонн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торые периодически репетируют в филармонии. Здесь же будет студия для академии вокала. Ребята будут не только оттачивать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но и проводить концерты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

– Для хореографов было непросто подобрать объект, поскольку требуются именно высокие потолки и м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Здание на Есенина идеально подходит. В нем можно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как репетиции несколь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так и свод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 несомненный плюс второго объекта, на улице Ленина, еще и в том, что неподалеку отсюда музыкальная школа, где занимаются 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ы и вокалисты, будем проводить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помним, Академию эстрады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Из 64 претендентов эксперты выбрали 27 вокалистов для дальнейшей работы с педагогами академии и народной артисткой России Ларисой Долиной.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 конца июля. Также в июле начнетс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шоу программы для концерта,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Остро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лючили контракты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ных процедур определили подрядчиков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ъект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на 2023 год.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ают 20 объектов. Среди них скверы, пешеходные зоны и парки.

Эти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поддерж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ход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рошедшег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 в Поронайске обустроят место отдыха в районе «Рефулеры»,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городскую парку, а в Смирных обновят территорию площади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Л.В. Смирных. В Томарин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реобразят сразу две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 сквер в селе Красногорск и привокзальную площадь в селе Ильинское. Полный список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ЖКХ в раздел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для людей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закупает материалы, навозят на территориях порядок. В мае приступят к выполнению работ,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роме того, благодар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грамм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 этот год удалось расширить с 20 до 25 объек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преобразят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озеленение территорий, обустроены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и зон со скамейками, оснащение декоративным освещением, а также детски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для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что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современную и комфортную зону отдыха. На эти цел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454 млн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100 млн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Реализация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 2023 году. С 15 апреля стартует Всероссийское голосование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гд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выбрать, какие из 41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объекта преобразятся в 2024 году.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поселки,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около 13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람사는 이야기] 1961년생 파주 소 락 봉사단체 '파소연' 유종규 회장

"마음 전달하는 '휴먼'의 가치 고향에서 펼치고 파"

"친구들과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작은 나눔인데... 씩스럽습니다." 직접 재배한 쌀과 배추·무 등으로 불우이웃을 찾아가는 봉사단체가 있어 화제다. 파주에 거주하는 소 락(1961년)생들이 '인간다움(휴먼)'을 간직하기 위해 만든 '파소연(파주 소 락 연합)'이다. 파 소연(회장·유종규)은 1974년 파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소 락 친구들의 모임체로 2018년 창립됐다. 당시 파주에는 11개 읍·면에 35개 초등학교가 있었으며, 소 락 학생은 300명 가량이었다고 한다. 유종규 회장은 "대부분 가난한 농촌 자녀들로 어렵게 공부하던 시절이었지만 모두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시절의 정서와 감성을 되찾아 공유하고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놓고 자란 고향 파주를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모였다"며 파소연 창립 의미를 설명했다. 파소연이 창립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일이었다. "이역만리 사할린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명절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할린 영구 귀국한 어르신 보살 피 직접 재배 쌀·배추·무 등 나눔 사용강원 산 불 성금 모아 이재민 돕기도



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쌀과 배추, 무 등을 나눔봉사에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회원들이 직장에 휴가까지 내며 백신 접종센터에서, 강원지역 대형산불 때는 이재민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청소기 20대를 마련해 산불현장으로 달려갔다"는 유 회장은 "갑작스런 재난이나 건강상 실 등으로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는 묵묵하게 주변 불우 이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2년 전부터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대한 '반찬 만들어 주기' 봉사가 파주시자원봉 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지만 이들 가정의 부엌환경이 직접 조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관내 봉사단 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파주시의 지원을 요청 했다. 유 회장은 "파소연의 봉사는 곧 '휴먼'" 이라면서 "일시적인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마음'을 봉사의 기본으로 삼아 봉사의 가치를 삶에 담아가 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최재형기념사업회, '제4회 최재형 상' 수상자 선정

대상에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단체상은 한국콜마 특별활동가 상은 한 블라디미르 '고려사람' 대표와 남종석 전 폴란드한인연합회장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 사장 문영숙)가 4월 1일 '제4회 최재형 상' 수상 자를 발표했다.

'최재형 상'은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 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의 폐지가 정신을 기 리기 위해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이 되던 2020년 제정된 상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최재형 상'은 선정위원 회(위원장 최용규 전 인천대 이사장)의 심사를 거쳐 대상, 단체상, 특별활동가상 등 총 4명의 수 상자를 선정했다. 선정위원으로는 조남철 아시 아발전재단 상임이사, 김경호 대구광역시 자문 대사, 한영섭 덕연인문학연구원장, 장세정 중앙 일보 논설위원, 최재형기념사업회 চে앙목 공동 대표와 문영숙 이사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최재형 상' 대상 수상자로는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장이 선정됐다. 구 이사장은 이태석재 단 이사장으로서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봉사와 헌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금권 만능주 의, 이기심 가득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바꾸는 민주시민 교육 운동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재형 상' 단체상에는 중견기업 '한국콜마' 가 선정됐다. 한국콜마는 일본에 넘어간 고려시 대의 불화를 구입해 국가에 기증하고, 이순신학 교와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해 임직원들에게 역사 의식 함양과 기업의 독서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무궁화 보급운동 등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등 최재형 선생의 기업인 정신과 부합되는 활동 을 펼쳤다. 특별활동가상 수상자로는 한 블라디 슬라브 '고려사람(koryo-saram)' 사이트 대표 와 남종석 폴란드한인연합회장이 선정됐다. 한 블라디슬라브 대표는 연해주에서 활동



한 블라디슬라브 '고려사람(koryo-saram)' 대표

한 독립운 동가 한창 걸·한성걸· 한 알렉산 드르 3형제 중 한성걸 선생의 손자 로, '고려사 람(koryo-saram)' 사 이트를 개설 해 운영하면 서 고려신문의 편집자로서 러시아권은 물론 구 소련지역의 문서보관소에서 많은 역사사료를 수 집했고, 특히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고(故) 최 발 렌틴 씨가 최재형 및 구소련 독립운동가들을 소 개하는 책을 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남종석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으로 고통받는 고려인 동포들을 다양한 분야에 서 돕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폴란드 한인연합회장으로서 기금 마련을 위해 직접 티 셔츠를 제작하고 세계한인대회대회 등에서 현지 사정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며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폴란드 한인사회를 결 집해 폴란드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숙소 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지원하 는 한편, 폴란드에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들에게 취업 알선과 아동 보육 등을 지원했다.

대상은 상금 1천만원과 상패가, 단체상은 상 패가, 특별활동가상에는 상금 1백만원과 상패가 각각 주어진다. 시상식은 4월 7일 국립서울현충 원에서 열리는 최재형 순국 103주기 추모식에 서 개최되었다.

인천 남동구, 사할린 한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연말까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모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사할린 한인 1세, 2세 43명이 참여하며, 남동사 할린센터에서 기초반, 초급반 두 개 반으로 전문 강사들이 주 2회 1시간씩 진행한다.

남동구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안정지 원금 지원 등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건강하고 행복 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 획이다.

(출처: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한국속의 아시아' 김해, 동포역사문화관 개관

[아시아엔=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 아시아발전재단 자문위원] 전국의 중국동 포타운과 고려인마을을 탐방할 때마다 아쉬 워다.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가 누구인지? 왜, 한반도를 떠났다가 귀환(歸還)하는지? 대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작 은 전시 자료/공간'이 있었으면 했다.

물론 경기도 안산시와 광주광역시 광 산구가 운영을 지원하는 안산 고려인역사 관(2016년)과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2021 년)은 예외다. 어쨌든 80만 중국동포와 10만 고려인동포가 함께 사는데, 너무 우리가 동 포들을 잘 모르고 있다. 아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도 했다.

지난 3월 31일 경남 김해시 동상동 글로 벌드립다문화연구소 부설 동포지원센터에 고려인, 사할린한인, 조선족 동포의 역사·문 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동포역사·문화 관이 문을 열었다. 안윤지 소장의 요청으로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 김병학 관장이 소중 한 역사 사진을 제공했다. 필자도 고려인과 조선족의 역사·문화를 압축적으로 소개하 고 또 지도와 사진 자료도 제공했다. 중국동 포(리광평)와 고려인동포(채예진)도 사진 자 료를 제공했고, 조선족의 역사·문화관 한어 (漢語) 번역은 전북이주민통합센터 김지영 대표가 수고했다.

개막행사로 김정호 국회의원과 정희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청장, 임주택 김해시 북지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필자(귀

환' 동포사회의 현황과 과제)와 김병학 관장 (광주 월곡고려인문화관의 자료와 의의)의 짧은 특강 후에, 동포지원센터는 동광초등 학교, 푸른숲 법률사무소, 화이트치과, 그리 고 김해시가 설립한 가야글로벌센터와 업무 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제 김해 동포지 원센터는 경남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거 주 동포와 연구자·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명소(名所)가 될 것이다.

필자는 장성우 경주 고려인마을협동조 합 이사장, 대구에서 일하는 박경진 행정사 와 김해 동포지원센터 개막행사에서 만나기 로 했다. 장성우 이사장은 2021년 가을에 이 미 카페 '고려인이랑' 내부에 (사)너머와 한 국외대가 제공한 고려인 역사문화 자료를 전시한 바 있다. <<아시아엔>> 2022-12-20 「[경주 고려인마을③]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 글을 읽는다면...」 김해 동포지원센터 전시관을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

우리는 오후 1시 조금 지나 동포지원센 터에 도착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 개막식 행사까지 40여 분의 시간이 있었다. 필자는 서둘러 동상시장 공영주차장으로 향했다. 보도를 통해 확인했지만, 80개 이상의 나라 출신 이주민이 모여 사는 김해시가 설립한 외국인주민 정착 및 화합을 위한 글로벌 커 뮤니티 공간인 가야글로벌센터가 궁금했다. 동상동 다어울림센터 6층에 올라갔다.

교육, 상담, 체육·문화행사, 취업, 지역연 계 센터를 알리는 홍보영상이 눈에 들어왔 다. 개소 1주년이 안 되어 한국어교육 외에



다른 사업은 준비 중인 듯했다. 앞으로 외국 인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 업과 활동이 있을지 기대된다.

'한국 속의 아시아촌' 김해의 상징인 동상 시장과 '종로'를 찾았다. 평일 한낮이라 시장 은 조용했지만, 점심시간 때여서인지 종로에 는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와 는 다른 이주민 거리의 모습(간판 등)을 보고, 이주민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가능하다면 이주민의 '한국살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주 민집거지는 더는 '게토'(ghetto, 빈민지역)가 아니다. 오히려 에스닉 경제로 낙후 지역이 재생된 사례가 훨씬 많다. 김해 구도심 동상 동 또한 이주민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았는가? '보고 먹고 듣고' 세 가지 즐 거움을 누릴 수 있는 김해의 '에스닉타운'에 학생과 연구자, 시민들이 더 찾으면 좋겠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대학생의 봄" 축제에 500명 이상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여

현재 사할린 지역에서 "대학생의 봄" 축제 참가 접수가 마감되었다. "대학생의 봄"은 매년 섬지역의 가수, 댄서, 연극 연출가 및, 언론인을 꿈꾸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장 창의적인 프로젝트이다. 사할린주 청소년기관의 보도부에 따르면 31회 째를 맞이하는 국가 교육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 모여 그들의 놀라운 재능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31회 전 러시아 국가 축제 "러시아 대학생의 봄" 지역 무대는 2023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옥짜브리" 영화관, "라두가" 문화 센터, '로지나' 문화회관, "스틀리짜"의 콩그레스 홀 및 아트 레지던스 "마야크 (등대)" 등 지역의 주요 공연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축제에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과 14세에서 35세에 해당되는 학교 및 직장인 젊은이들이 모인다.

올해의 경연 프로그램에는 쇼 프로그램, 보컬, 기악, 댄스, 연극, 오리지널 장르, 패션, 미디어, 비디오 및 예술 분야가 포함된다.

2023년 페스티벌 심사위원은 사할린 주의 문화 예술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다. 창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250개 이상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주의 젊은이들이 창의적인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할린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및 마스터 클래스와 창의적 미팅 등이 포함된다.

사할린 지역 무대 우승자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열리는 전 러시아 결승전에 사할린을 대표해 출전할 대표단을

구성하게 된다.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объединит более 500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верши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фестиваль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 самый яркий творческий проект, в котором каждый год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сотни начинающих певцов, танцоров, театрал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тридцать первый раз самая яркая молодеж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оберется вместе,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свои невероятные таланты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XXX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ссийская студенческая весна" пройдет с 18 по 22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ланируется задействовать ведущие площадк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инотеатр "Октябрь", ДК "Радуга", ДК "Родина", конгресс-холл "Столица" и арт-резиденция "Маяк".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ит более 500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школьников и работающую молодежь в возрасте от 14 до 35 лет.

В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в этом году следующие направления: "Шоу-программа", "Вокальное",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е", "Танцеваль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Мода", "Медиа", "Видео", "Арт". Экспертами Фестиваля в 2023 году выступят ведущие деятел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250 конкурсных номеров покажут участники в рамках твор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тся социально-знач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цель которых —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раскрытия творческой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молодежи к объекта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з побед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будут сформированы делегаци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финалах в мае-сентябре 2023 года.

사할린, 노인들을 위한 건강한 식단 대회 개최

지역 프로젝트 '노인 세대'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55세 이상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건강식단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단에게 22개의 요리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의 건강 식단은 당뇨병 예방, 심장 강화, 면역력 유지, 스트레스 예방에 유용한 재료들로 구성되었으며 제출된 요리 중에서 각각 4개의 우수작품이 선발되었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다"고 이번 대회를 주최한 사할린주 공중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엘레나 스톨라로와가 말했다.

그 예로 참가자 중 한 명인 89세의 마르타 코라기나는 새싹 채소와 새우를 넣은 봄철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를 제출했는데, 그녀는 채소와 해산물이 결합된 것이 가장 건강하다고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ели конкурс здорового питания среди островитя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конкурс здорового питания, как способа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у людей старше 55 лет.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суд жюри 22 блюда. Выбрали 4 лучших по номинациям: блюдо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укрепления сердца, поддержания иммунитета, профилактики стресса.

- Блюда разнообразные, каждая участница конкурса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ла, представляла свое,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врач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Елена Столярова.

К примеру,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Марта Корягина приготовила весенний овощной салат, главным ингредиент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а креветка. По мнению 89-летней сахалинки, сочетание овощей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 самое полезно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3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광고자 하시든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